

# 「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」 백일장 분야

작품 제목

정직에 대한 나의 경험

## 작품 본문

‘정직’이란 단어에 대해 나는 생각이 많았다. 학교에서든 문제에서든 정직이라 하면 나는 정확한 뜻은 모른 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! 이라고 말했었다.

물론 전체적인 뜻은 맞지만 오늘 정직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다. 정직이란? 나에게 정직이란 무엇인지 생각 해보았다.

나에게 정직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이라고 느껴졌다. 정직은 많은 뜻을 담고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하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말을 쓴다. 나는 좀 다르게 생각했다. 정직이란 사람의 성격이고 정직이란 사람의 마음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? 말이다.

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까 말이다. 이 생각이 나의 정직이다.

이제부터는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려 한다. 나는 13년이란 시간 동안 정직하게 행동한 일들과 정직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다. 여러 가지 경험 중 그 중 제일 기억에 남는 두 가지의 경험을 소개하겠다.

먼저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곤 했다.

그 때는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도 몰랐다.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게 있다.

초등학교 1학년 초기 즉, 어린이집이 끝난 후였다. 이제 학교에서 놀던 중 친구가 열심히 만든 걸 잘못 부신 적이 있었다. 조금 부서졌었지만 그 친구의 표정은 정말 슬픈 것 같았다.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점점 그 친구와 말하는게 불편해져 사과했던 적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난다.

그 때부터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정직했던 기억들이다. 정말 많은 기억 중에도 예전에 정직하지 못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이 기억난다. 친구가 열심히 만든 걸 잘못 부신 적이 한 번 더 있었다.

하지만 그 때 나는 먼저 친구를 불러 사과하고 같이 다시 만든 적이 있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.

이 두 가지 경험은 내가 처음 정직을 듣자마자 바로 생각난 두 가지 기억들이다. 잘못 댔다는 걸 깨달은 기억, 그걸 고친 기억, 이 두 개가 모두 내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난 정말 신기한 것 같다. 내가 쓴 이 두 가지 기억들에서 느낀 점은 처음에 쓴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다. 말하지 말고 속일까?가 대표적이다.

나는 원래 의심 받지도 않았다. 그런데도 말한 이유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.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 반의 친구들은 거짓말을 계속 했다. 그걸 나는 보고 왜 거짓말을 할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곤 했다. 그 생각을 내가 가진 덕분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.

오늘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글까지 써보니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행동한 날들이 모두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세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. ‘정직’이란 것은 우리나라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. 매일매일 정직하진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사는 누구나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정직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다.

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정직에 대해 직접 글을 쓰고 생각해보고 나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이 글쓰기를 하다보니 내가 아직도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워졌다.

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직은 너무 좋은 뜻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다. 거짓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거짓

말을 줄 뿐, 좋은 점은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커졌고 지금부터는 사소한 일이라도 “나 혼자 짬이야” 라는 생각을 버리고 “나 혼자라도!” 라는 생각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더욱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.